

“광주 U대회 테니스장 설계용역 입찰 특혜”

감사원, 市-산하기관 운영 감사 결과

1억4000만원 횡령 동구청 공무원 파면 요구

광주시가 지난해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테니스장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특정업체의 접수를 조작해 낙찰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광주시와 산하기관이 2010년 1월~2012년 10월까지 처리한 업무에 대해 기관운영감사를 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 9억6000여만 원 규모의 2015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테니스장 건설공사 실시설계 용역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최종 낙찰자로 결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

광주시는 당시 해당 업체의 전기분야 책임기술자가 타 자체에 등록되어 참가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공동수급체에 따른 평가점수를 0

점으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이유없이 오히려 책임기술자의 ‘등급·경력·실적(20점 만점)’ 및 ‘업무 종합도(4점 만점)’ 항목에서 모두 ‘만점’ 처리했다. 감사원은 당시 정당하게 평가를 했다면 평가제외 또는 각각 13.33점과 2.67점을 받아 총 82.5 점으로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자동탈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 최저점수인 90점을 간신히 넘어서 90.52점을 받았고, 이는 담당과장과 국장의 최종결재를 받아 그대로 통과됐다. 이 업체는 이후 실시된 입찰에서 95.45점의 적격심사 종합점수를 받아 최종 낙찰자로 결정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당시 업무를 본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 것으로 징계처분할 것을 광주시장에게 요청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광주시 동구청 회계정보과에 근무하면서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000만원대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 A(여)씨에 대한 파면을 동구청장에게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빠르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중도 포기해 억대의 예산을 낭비한 남구도 지적했다.

남구는 2010년 1월부터 ‘저탄소 녹색미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충남 아산, 독일 및 오스트리아로 선진시설 견학을 가는 등 사업을 추진했으나, 주민의 반대가 이어지자 2011년 7월26일 사업을 포기했다. 당시 1억956만원 상당의 예산이 낭비됐다.

북구청은 보전녹지지역에 지방도 시계위원회 회의 등도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드러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이번 감사원의 이번 보고서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진기자lucky@kwangju.co.kr



노인 일자리 발대식

7일 오후 광주시 서구 염주체육관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광주지역 5개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광주 노인 일자리 발대식’이 열렸다. 광주시는 올해 144억원을 투입해 전년보다 395개 늘어난 7530개의 노인일자리를 만들기로 했다.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군공항 이전, 수원·대구와 묶어 해결”

강운태 시장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늦어도 내년 착공”

강운태 광주시장은 7일 “광산구의 군공항 이전 비용 문제는 수원과 대구 등 다른 지역의 군공항과 묶어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오후 광산구청 7층 회의실에서 열린 ‘시민과의 대화’에서 “전투비행장 이전문제는 자치단체 한 곳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수원 전투비행장의 경우 시내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 매각금액이 12조~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투비행장 1곳을 옮기는 데 최소 2조원씩, 광주와 수원, 대구 3곳의 이전비용으로 6조원이 예상되는 만큼 수원비행장 매각

대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광산구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에 대해서는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에는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현재 ㈜서희건설과 KT 컨소시엄이 25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나섰으며 철도시설공단도 530억원을 들어 새로운 역을 짓기로 했다”며 “더 좋은 조건의 투자 업체가 나오지 않으면 늦어도 내년 초에는 복합환승센터 착공 공사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도시와 관련, “기아차가 생산하는 62만대 외에 나머지 50만여대를 수소·일반 전기차, 클린 디젤차,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광주 평동 산단에 진환경자동차산업단지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강 시장은 어동산 관광단지 개발에 대해서는 “애초 수립한 기본계획을 그대로 살려 특급호텔과 테마파크가 중심이 된 휴양,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시민의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현재 여러 업체를 놓고 선별 공모를 한다”고 밝혔다.

/최승렬기자srchoi@kwangju.co.kr

용연·덕남정수장에 소수력발전소

지에스파워, 51억 들여 2016년 완공

광주 용연정수장과 덕남정수장에 소수력발전소가 건설된다.

지에스파워(www)는 7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총 공사비 51억 원을 투자해 용연정수장과 덕남정수장에 소수력발전소 1기씩을 오는 2016년 완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애초 예산 31억원을 투자해 용연정수장에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지만, 국내 발전사 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체 최초로 지난해 6월 국내 발전사에 건설·운영을 제안 공모했다.

시는 애초 예산 31억원을 투자해 용연정수장에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계획했지만, 국내 발전사 자본으로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자체 최초로 지난해 6월 국내 발전사에 건설·운영을 제안 공모했다.

공모 결과 선정된 지에스파워는 발전소 건설비용을 전액 부담해 30

년 동안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또 매년 5억원씩 30년간 총 150억 원을 시에 납부하기로 해 막대한 세외수입이 예상된다.

소수력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210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751Mw 전력을 생산하게 된다.

이 발전소는 소나무 185만 그루를 심어 탄소 5064t을 줄이는 것과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를 낼 수 있다.

한편, 지에스파워는 지난 2012년 매출액이 1조700억원에 달하는 GS 그룹 계열사로 발전업계에서 기술력과 자본력이 탄탄한 우량 기업이다.

/부진기자lucky@kwangju.co.kr

광주 서을 5명 응모 치열한 경쟁

민주 지역위원장 공모 마감

김종식 구청장도 지원 순천·곡성은 3명 몰려

된다는 점 때문이다.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공모에는 노관규 전 순천시장과 김영득 전 민주당 부대변인, 강기정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고재경씨 등 3명이 응모했다.

민주통합당이 광주·전남 지역 위원장 공모를 7일 마감한 결과 광주 서구 을과 순천·곡성 지역 위원장 후보에 각각 5명과 3명이 응모해 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7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광주 8개 지역위원회 위원장과 전남 11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를 마감한 결과 현재 지역위원회 이 선거에서 당선된 위원장이 예상된다.

반면, 5명이 응모한 광주 서구 을 지역위원회는 경선이 대의원과 권리당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경선 여부를 판단해 선출하게 된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광주·전남 19개 지역위원회 중 현역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16개 지역위원회는 현역 의원 체제로 유지될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만큼 사고 지역구의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공모 결과를 토대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경선 여부를 판단해 선출하게 된다.”

이 가운데 이례적으로 현역 구청장이 지역위원장에 응모해 지역 정치권에서 응모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역위원장에 응모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데 경선이 치러질 경우 당원을 상대로 한 선거운동과 중앙당 면접 등의 일정으로 인한 행정 공백이 우려

/최권일기자cki@kwangju.co.kr

전남 시군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외면

의무비율 1% 채운 지자체 한곳도 없어

전남 일선 시·군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실적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 등에 따라 모든 지자체는 각종 시설공사비, 사무용품비 등 총 물품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해야 하지만 이 지역 자체의 구매 실적이 저조하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역 22개 시·군의 지난해 기관구매 총액은 9634억 원이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8억9500원으로 고작 0.09%에 불과했다.

법이 정한 의무비율 1%를 채운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지역별로는 구례군이 3억2000만 원을 구매해 기관구매 총액의 0.79%를 차지했고, 진도군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가 고작 100만원에 불과

/오광록기자kroh@kwangju.co.kr

삼희공인중개사

■상가건물전문■

◆10억부터 50억 이상◆

급매물 본사 당일계약!

◆경매 진행 중 부동산◆

(취하 및 매입가능)

◆상속부동산/지분물건◆

(즉시 매입가능)

매 매

* 두암동 두암터미널 사거리 대로변 6층건물
대지507제곱미터(153평) 건2180(660평)
6층주택(48평)대출금(10억) 매매가22억
보4억3500만/월1390만/실투자금7억7천
실수익률 연13.8%

* 경기도화성시 삼성전자 인근 대1743제곱미터(527평) 김정40억/ 매매가27억 수익률 00%

임 대

*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1층 대로변
보3억/월2200만 건330제곱미터(100평)
* 서구 치평동 아파트 인근 4층 사무실
보1억/월350만 건494.49제곱미터(149평)
* 북구 문흥동 대로변 4층 건727제곱미터
(220평) 보1억/월500만 매매가 6억5천만

상가 투자자, 매수자 상담환경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010-8730-3340

신뢰할 만한 투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금당5가 대지 265m²(80) 건평990m²(300) 감정17억
선 5층 건물 매도 10억2천

•시설관리비 한방병원 산간동 대지 645m²(194) 6층 건
물 1230m²(372) 감정 14억 은행 8억3천 매도12억4천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대지 649m²(210) 건평 158평 공

시지가 11억 매도2억

•서방시장 4거리 대지 1182m²(356) 건평 2850m²
(867) 병원·요양시설 적합 공시가 2394천 매도 19억

•중흥동 대지 301m²(91) 건평 1124m²(340평) 대출4억
5천 보증금 5천 월730만원 매도7천원

건물매도

•전원주택 담당 금상면 대지 910m²(275) 2층주택
174m² 대출금 매도 1억4500

•광주역 앞 대지 357m²(108) 건평 1294m²(397) 원룸6
투룸17 대출3억 보증금 8억6천 월1000만 매도 7억

•부구 우산동 대지 330m²(100) 건평 1366m²(412) 대출6
억 보증금 8천 월900만 매도 10억

•봉동면 천천리 7평 2546m²(770) 주택 102m²(31) 전원
생활적합 아파트나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신안동 모델 대지 364m²(110) 건평885m²(268) 대출